

난중일기. 삶의 순환과 고독, 사랑을 말하다

최지영

얼마 전 방 정리를 하다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내가 썼던 일기를 발견했다. 이걸 처분해야 할지 말지 계속 고민 중이었는데 먼지도 쌓이고 이미 색이 바래 버린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괜스레 머쓱해지고 감회도 남달랐거니와, 최근 10여년 만에 연락이 닿은 초등학교 친구와 가끔 만나 이야기하고 추억을 떠올려보며 일기장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일기는 내 스스로의 발자취, 내 삶에 대한 전언(專言)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산해내는 수많은 글들 중에서 일기만큼 객관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인 텍스트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00년대 초 드라마와 책을 통해 ‘이순신 신드롬’이 일어났던 기억이 난다. 기존의 성웅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던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에 대해 명확하게 고증되지 않은 역사적 맥락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책이 출간되었다. 중, 고등학교 시절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련된 책을 탐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내가 그토록 하나에 천착하여 열정을 드러내던 시기가 있었나 싶다. 이순신.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어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으로 거북선 제작과 더불어 전쟁을 대비했다. 옥포와 사천의 승리 이후 학익진을 선보인 한산대첩은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점이 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후 삼도수군통제사에 제수되나 조정의 모함으로 백의종군하였고 곧 다시 복직,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였던 명량에서 대승하고 수군을 재건했다. 그리고 마침내 1598년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사하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문(文)과 무(武)를 겸비한 조선의 명장이다. 그 중심에 임진왜란 7년 전쟁과 이순신의 고뇌를 담은 난중일기가 있다. 지난 2008년 <충무공 유사>가 발견되며 기존 일기에 누락된 을미년 32일치의 기록이 발견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세심히 볼 수 있는 계기였다.

나는 난중일기에서 ‘순환의 미학’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다른 맥락에서는 ‘성실성의 미학’ 이요 ‘축적의 미학’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라는 것이 결국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건들의 총체이자 지극히 무수한 개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과정이라 한다면 반복과 성실성은 글을 써 내려가는 작가와 대상이 되는 행위자들 모두에게 응집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수고로움, 다시 말해 삶의 궤적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 수고로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순신이 전쟁을 직접 기록함과 동시에 전쟁의 참화를 몸소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록 전쟁과 침략이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감’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은 그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삶은 역설적이게도 참으로 단순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매 순간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지극히 평화로운 일상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반복’과 ‘단순함’이라는 기제에 대해 이따금씩 염증을 느끼고 타성에 젖은 채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려 한다. 그러나 필모그래피(filmography)의 실현이 결코 찰나의 시간을 통해서 올 수는 없다. <노인과 바다>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밝힌 소감이 스쳐 지나간다. “쓴다는 것, 그것은 고독한 삶이다. 작가는 고독 속에서 다시 작품을 완성하며, 정말 훌륭한 작가라면 날마다 영원성이나 영원성의 부재와 맞서 싸워야만 한다.”

이순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고독과 사랑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고 싶다. 우리는 현실이 사무치도록 힘들고 상처를 받고 이해타산의 문제와 부딪히는 순간 현실과 타협하며 소신을 지키지 못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때때로 정말 고독하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다름 아닌 고독과의 싸움이다. 인간이 가장 절망을 느끼는 고독함에 대하여 그는 끊임없이 수용하고 이를 자기 원칙이라는 것으로 승화시켰다. 불합리한 신분제와 관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순신은 타협하지 않은 대신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과 마주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독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의 혜안, 즉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의 ‘사랑’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며 바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다. 이순신은 가장 높은 곳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돌아볼 줄 아는 씩씩이를 발휘하지만 결국 이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의 상황에서, 13척만을 이끌고 명량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도 세상에 대한 치열한 발걸음이자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는 행보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스스로 자신을 진실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반문해본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구절을 떠올리며 한 인물의 불꽃같았던 삶을 기억하고자 한다. 삶에 대한 통찰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는 법칙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지금까지 이 지상에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불멸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